

지역 매 아리

부안상설시장, 팔도장터
더위타파 관광열차 큰 인기

부안상설시장이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이용해 부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축복의 땅 부안으로 떠나는 더위타파 가차여행!이라는 테마로 청량지역을 출발한 관광객들은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하여 서해 바다의 청맛을 느낄 수 있는 수산전 거리를 시작으로 식당과 특산물 판매장 등을 둘러 부안전통시장의 매력을 만끽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MBC 생방송 오늘 저녁! 탑에서 동행 취재를 실시해 평소보다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이날 촬영분은 오는 19일 전국으로 방송된다.

한편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레일이 연계해, 전국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공모사업으로 부안상설시장은 2년 연속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부안군 시장 관계자는 "살레는 가차여행과 연계한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 덕분에 관광객 방문이 늘어 옛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농기센터, 단풍미인대학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단풍미인대학 귀농귀촌과 교육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이용 실습교육을 갖고 있다.

기술센터는 서남권농기계인대사업소 농기계실습교육장에서 농기계 사용 경험이 없는 초보자와 귀농귀촌과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날 10일과 17일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농기계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농기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소형 굴삭기, 관리기, 예초기 등 농기계의 구조이해와 조작법, 관리요령 등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됐다.

김지영(내장상동) 교육생은 "농기계 조작법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농기계 이론과 조작법을 상세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풍미인대학은 농업의 창의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개강해 오는 11월까지 5개 과정(친환경유기농업과, 약용자생식물과, 귀농귀촌과, 전자상거래마케팅과, 농산물 가공창업과)에 120명이 참여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산 약취 해소 적극 대응

정읍시, 무인 약취 포집기 확대 설치 등 감시시스템 운영

정읍시가 축사로 인한 약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관련해 시는 무인 약취 포집기를 확대 설치하고 능동적인 약취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약취 민원인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약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정형 포집기 1대와 이동형

포집기 3대를 추가 구입하고 지난 10일까지 현장 배치를 마쳤다.

특히 이동형 약취 포집기를 도입해 약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약취 민원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형 약취 포집기의 에너지원은 태양광 전지와 전기 배터리로 서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은 반면 한번 설치하면 이동이 어려워 탄력 있는 민원응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전기 배터리만으로

구동되는 이동형 포집기는 설치가 필요한 곳에 쉽게 이동·설치가 가능해 잦은 약취 민원 대응 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총 2200여개의 가축 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분뇨처리와 축산약취 해소를 중장기 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인 약취 포집기를 활용한 약취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형 무인 약취 포집기 7대를 구입해 산업단지과 양돈사 등에 설치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본격 추진

고창군, 등급제 명시된 조례 7건 정비 착수 등 복지 시스템 구축

고창군이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난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1~3' 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 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했다.

장애등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기존 복지카드)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으로 표기되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복지카드를 계속사용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도 대폭 확대된다.

군은 우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등급제가 명시된 고창군 복지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조례 7건을 이른 시일내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고창지역의 장애인이 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심 속 물놀이 공간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20일 개장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본격 개장된다.

시는 초·중·고 여름방학에 맞춰 8월 18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을 활용해 조성된 물놀이장이다. 정읍고등학교 앞 정동교 교량 아래 3천800㎡ 면적에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썰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7일 그늘막 시설인 물풍선 텐트와 남녀 탈의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물놀이장 개장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우천으로 하천 수위가 증가하거나 수질이 탁할 경우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

시는 청소년 물놀이장 개장 기간 관계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수상 안전요원, 물놀이 보조요원, 응급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본격 개장된다.

진료 요원 등 매일 18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관련해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여름철 정읍지역 도심지 최고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심이 얕아 어린이 물놀이장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매년 평일 300여 명, 휴일 1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저녁에는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된 경관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물소리가 시원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시민에게 휴식지로 사랑받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마실길 격포안내소 개소식이 최근 격포해수욕장 수목공원에서 마실길 이사 15명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화와 스토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길로!

변산마실길 격포안내소 개소식 가져

(사)변산마실길 격포안내소 개소식이 최근 격포해수욕장 수목공원에서 (사)변산마실길 주관으로 마실길 이사 15명과 부안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규태 (사)변산마실길 이사장은 "여름철 피서객 및 탐방객의 안내를 위한 격포 안내소를 개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가슴 벅차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걷는 문화 중심에 있는 부안

변산마실길이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문화와 스토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길로 탄생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변산마실길은 홍보하고 전국 최초로 인문학이 접목된 걷기길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부안 변산마실길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낭송지도자반, 서예교실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활기 넘치는 꽃피는 항구, 격포

격포항권역사업추진협의회-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지속가능 관광 위한 바람꽃길 조성 등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격포항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격포항권역사업추진협의회)는 최근 부안군격포항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격포항권역사업추진협의회는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와 상호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주도형 성공 사업 모델 마련, 부안마실길과 연계한 변산반도국립공원 조성 등 다각도에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주민주도형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해설사, 프리마켓, 마을축제, 홍보부스 연계 운영 등 공동 참여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격포항권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인적자원의 교류와 교육지원, 정보와 노하우 상호교환, 사업홍보,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대해 격포항권역사업추진협의회 김현채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더 이상 마을사업이 행정과 주민간의 뉘이 아닌 지역의 전문기관들이 동참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하고 격포항권(격사,격하,격하2) 2세가 살기 좋은 더 나은 미래를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안군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격포항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은 2018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꽃피는 항구, 격포'라는 슬로건 아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활기 넘치는 마을로 변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